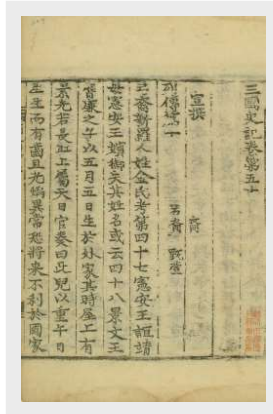


궁예[弓裔] 미륵불을 자처한 난세의 효웅

미상 ~ 918년(태조 1)



삼국사기 궁예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궁예(弓裔)는 후삼국 시대의 한 축이었던 후고구려를 세운 인물이다. 한때 신라 영토의 2/3를 차지하며 크게 세력을 떨쳤으나, 폭압적이고 가혹한 정치를 펼쳐 민심을 잃고 부하들에게 제거되었다.

2 출신과 성장

궁예의 성은 김씨로 신라의 제47대 헌안왕(憲安王) 혹은 제48대 경문왕(景文王)의 아들이라고 전하며 어머니는 후궁이었다고 한다. 태어난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태어난 날이 중오일(重午日)인 5월 5일이었고 지붕 위로 흰 빛이 무지개처럼 뿜었는데, 이것이 나라에 불길하다는 일관(日官)의 말이 있어 왕의 버림을 받게 된다. [관련사료](#) 왕이 보낸 사자가 아이를 죽이기 위해 다락 아래로 던졌으나 유모가 받아 목숨을 건졌다. 다만 실수로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한 쪽 눈이 멀게 되었다고 한다. [관련사료](#)

궁예는 유모의 손에 의해 길러지다가 10여 세 때 자신의 출신과 처지를 알게 되었다. 이에 강원도 영월에 있는 세달사(世達寺)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선종(善宗)이라는 법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3 혼란을 틈타 난세를 달리다

신라 말 정치가 혼란스럽고 중앙 정부의 집권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889년(진성여왕 3)부터 전국적으로 소요가 발생하였다. 궁예는 승려의 신분이기 는 했지만, 계율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담력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무리를 모으면 뜻을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절을 나섰다. 891년(진성여왕 5)에 죽주(竹州)에서 세를 떨치던 기훤(箕萱)에게 의탁하였지만 중용되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892년(진성여왕 6) 다시 지금의 강원도 원주시(原州市) 일대인 북원(北原)에 자리한 양길(梁吉)의 휘하에 들어갔다.

양길은 기훤과 달리 궁예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병사를 나누어 동쪽 지역을 공략하도록 했다.